

옛 소련 한글학교에 핀 '광주 온정' 30년

광주일보 학교 설립 기금모금 전개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
월곡고려인문화관서 내년 4월까지 열려
당시 사진·신문·교재 등 30여점 전시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과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언어에는 민족 고유의 지문이 있다'는 표현은 그만큼 말과 글이 지닌 역사성, 보편성,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글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정신이 투영돼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문화'의 토대에는 한글을 토대로 한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한글을 모티브로 하거나 한글로 쓰여질 콘텐츠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옛 소련의 6개 고려인 집성촌에 세운 광주한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1년 광주전남지역 개인과 단체가 헌지에 건립한 사실상 국내 최초 민간한글학교다. 당시 광주일보는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월곡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광주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50번길 29)은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을 2022년 4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고려인문화관에서는 개교 30돌을 기념하는 행사가 조촐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영훈 광산군의회 의장, 당시 사업을 총괄 추진했던 김중재 통일원 광주북학관 관장(광주 향교 전교), 박용수 고려인동맹위원회 위원장(한신대 초빙교수), 김병학 고려인문화관 관장, 월곡동 거주 고려인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당시 고려인 모국어 교육과 계몽을 위해 광주가 앞장서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며 "현지에서 한글을 가르친 교사들의 노고는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당시 한글학교 대동은 전남대 임재환 교수의 장으로 시작했다. 특히 광주일보가 주도적으로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운동을 전개해 화제가 됐다. 특히 광주일보는 '창사 39주년 기념사업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 개교'(1992년 1월 17일자)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타슈켄트에 한글 선생님 간다'라는 기사에는 타슈켄트를 떠나는 '한글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당시 한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 2개, 카자흐스탄에 2개, 러시아에 2개가 세워졌고 1991년 8월 10일 첫 현판식을 열었다. 사실 광주와 고려인과의 인연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소련이 개방되고 한국과 소련 간 교류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광주와 고려인이 모국어 교육과 계몽이라는 만남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을 둘러보는 시민들.



1992년 1월 17일자 광주일보에 소개된 '한글학교 개교' 기사

개교 첫해는 현지 고려인을 채용해 건물 수리와 학교 운영을 해왔다. 그러다 1992년 초부터는 광주에서 한글학교 교사가 파견됐다. 1~3월에 임재환·김수진·전현숙·허선행·이강희 교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3~6월에는 장원장·장경미·김병학 교사가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9월에는 한민숙·조영옥 교사가 러시아로 떠났다.

파견 교사들은 대부분 갓 대학을 졸업한 새파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자원하여 소련으로 그렇게 건너갔다. 말로만 들던 고려인들과 만났고 모국어에 목말라하던 이들과 조상의 언어로 소통을 했다.

전시장에는 당시 한글학교 모습과 운영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신문, 학교 회계장부 등 3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재, 관련 서적들이다. '재외국민용(러시아판) 한국어', '재미있다 한국어', '한국어(초급)' 등 소련에서 초기에 사용된 한국어 교재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모국어를 그리워했을 고려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후 타슈켄트한글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모국어교육의 사명을 담당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과 상황이 변해 부득불 1995~1998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 현재 타슈켄트한글학교는 첫 파견교사였던 허선행 교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옛 소련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학교로 발돋움했다. 타슈켄트한글학교는 1995년 교명과 체제를 타슈켄트세종한글학교로, 2011년에 세종학당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파견교사였던 김병학 고려인문화관 관장은 "정부도 아닌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이 이루어낸 이같은 뜻깊은 일은 우리나라 교육사 및 고려인 교육사에 획기적인 일로 남아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유산 김학근·미술 조재호·공연 조오환

대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동전통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대상 부문 3명, 한우물상 3명, 미래인재상 12명 등 총 18명을 선정·발표했다. 대상(3명)에 각각 500만 원, 특별상 한우물상과 미래인재상 수상자 15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대상 부문에는 문화유산에 향토사학자 김학근, 미술에 도자 공예가 조재호, 공연에 민속예술인 조오환 씨가 선정됐다.

김학근 향토사학자는 교육 유공자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 받았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 전국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작가는 전남도 미술대전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고 전남도 문화재단전문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남도 도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조오환 씨는 2006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땀배 노래' 지정을 받은 민속 예술인으로 '진도민요집' 발간 등 50여 년간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 전승에 앞장서 온 공적으로 수상했다.

특별상인 한우물상에는 서각예술 이진문, 전통무용 박석순, 풍물(설장구) 김우철씨 등 3명, 미래인재상 청년부는 전통무용 한명선, 한지공예 천영록, 공예(도자기) 정지윤, 국악 김산옥, 금속공예 문정운, 전통공예 한준혁, 국악 이한서, 현대무용 정현미 씨 등 8명이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에는 대교 유현중, 줄타기 안시현, 국악 풍물 정단아, 풍물 줄타기 김하민 학생 등 4명이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에 김경희 작가

광주전남소설가협회(소설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희(사진) 소설가가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소설가협회는 최근 광주시 서구 모처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김경희 작가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광주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현재 조선대 국문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모든 예술이 침체돼 있었는데 소설가협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회원들 간 교류를 비롯해 협회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설가협회 차원의 동인지 발간이 첫 번째 목표"라면서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회원 전체가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 출신인 김 작가는 그동안 소설집 '새를 날아오르다', '켄타우로스, 날다'와 장편 소설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 등을 발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 소련 한인 위한 모국어 교육에 힘 보탬 것"

한글학교 첫 파견교사 장원장 씨

"제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고려인한글학교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한 것은 그때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토대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한글학교 기획전 전시장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당시 한글학교 첫 파견교사로 현지에 나갔던 장원장(사진) 씨

는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한글학교에 나갈 때만 해도 젊은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중년의 남자로 변해 있었다.

장 씨는 지난 1992년 알마아타고려전산한글학교장으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난 92년 4월부터 94년 1월까지 근무했다.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고려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을 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컸다.

장 씨는 이후 국내에 돌아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서



봤했다.

사할린 동포 등 고려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동안 현지인들을 위한 교과서도 편찬했으며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어수학교육 등에도 기여했다. 그는 "지금은 한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민간한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구 소련 한인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 등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탬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